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7. 23.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증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서,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 ②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 ③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정부·국회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폭염 영향예보* 주의 또는 경고 단계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7.7.(월) 구미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1차(6월 11일), 제12차(6월 25일)에 이어 7월 9일(수)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 ①관심(31°C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②주의(33°C 이상 2일 지속) → ③경고(35°C 이상 2일 이상 지속) → ④위험(38°C 이상 1일 이상 지속)

**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사업장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신고

이와 함께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면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혹서기에 대비하여 산업현장에 기존 200억 원 예산을 모두 활용하여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추가로 제2차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하여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 1644-8595번으로 연락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

(참고)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노동부는 7.19.(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하여, 노동자가 화물차량(11톤)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하여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

○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유사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은 엄정 제재

권장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 시행되었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노동부 지방관서는 물론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74

정부·국회

(참고) 노동부 장관, 일선 산업안전감독관이 되어 불시 안전점검 실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화)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간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금지 미실시 등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점검 후에는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폭염예방키트와 빙과류 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매주 현장에 직접 나가 불시 점검·감독하는 한편,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으로 고위험 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하고 위법사항은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조속히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무협의 결과

보건복지부는 7.24일(목)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7.17일(목)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아 래 -

1.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9.2 노정합의가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및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에 대해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
 2. 향후 2025년 5월 14일 정책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현장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3. 9.2 노정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노조의 참여를 확대
 4.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아울러,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병원의 임금체불 문제 및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24(목)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86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8&bid=0027&act=view&list_no=1486930&tag=&nPage=1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7/1, 인천 남동구] 작업대 운반 중 작업대에 맞음
- [7/2, 인천 부평구]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 [7/6, 인천 계양구] 오수관로 측량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
- [7/7, 경북 구미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쓰러짐
- [7/8, 경기 고양시] 카트 수거 및 정리작업 중 쓰러짐
- [7/9, 충남 서산시] 이동식 크레인 해체작업 중 튕겨나온 고정핀에 맞음
- [7/9, 강원 영월군] 설비 출입구에서 살수작업 중 설비 내부로 떨어짐
- [7/11, 경기 고양시] 철골 조립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 [7/12, 경북 울진군]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깔림
- [7/14, 대구 북구] 굴착기 유도 작업 중 굴착기에 깔림
- [7/14, 전남 광양시] 철거 작업 중 배관이 붕괴되며 떨어짐
- [7/16, 대전 대덕구] 파지 투입 개구부에 떨어짐
- [7/17, 울산 울주군] 탱크 내 유기용제에 중독됨

제14회 아시아 로하스 산업대전 대상 수상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이 7월 19일(토)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2025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에서 환경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은 ESG 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친환경 및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사)한국대학발명협회와 아시아로하스산업인증협회 등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후원한다.

이번 산업대전에서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 ▲관련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초·중·고, 직업계고, 대학 등 학령별 교육과정 내 산업안전 체험·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 도입 등 사회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VR 체험교육 지원, 시각적 표현 중심의 비언어 포스터, 픽토그램 교육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접근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ESG 경영 가치에 기반한 산업안전 문화 확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08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질식 위험장소 찾기 참여 이벤트

우리 사업장 질식 위험장소 찾기 이벤트

참여기간
2025. 9. 30. 까지 참여가능

참여혜택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1차: 8. 14. / 2차: 9. 30.)

질식 위험장소에 출입금지 표지 & 안전수칙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01. 우리 사업장 질식 위험장소 찾기
※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분노처리장 등

02. 질식 위험장소에 스티커 부착하기

03. 인증사진 등록하기

지금 바로 인증사진 등록하기

표지와 스티커가 필요한 경우 검색창에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PEN

<우리 사업장 질식 위험장소 찾기 이벤트 참여 방법>

1. 네이버폼 참여링크 활용 : <https://naver.me/GreYYnps>
2. OPS에 표기된 QR코드 활용

<질식재해 예방 안전수칙 픽토그램 스티커 신청 방법>

1. 미디어 현장배송 : media.kosha.or.kr (7.16.(화)~ 신청가능)
-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는 즉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공단 본부 산업보건실 문혁기 과장(T.052-703-0387)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60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특수건강진단 결과 설명을 위한 리플렛 개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것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는 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근로자 스스로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소견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여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근로자들에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강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주의하세요”, “관리하세요”라는 말만으로는 잠재적인 위험을 느끼지 못해 무심하신 분들이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설명에는 의사소통 자체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기

제가 근로자 건강센터로 옮긴 2년 차부터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유소견에 대한 결과 설명을 아래와 같은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서는 먼저 건강진단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근로자가 노출된 유해인자와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건강 위험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건강진단 결과와 유해인자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이해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동기를 높이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의견서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개별 의견서를 매번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의견서를 쓰다 보니, 폐기능과 청력 검사와 같은 자주 반복되는 설명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템플릿처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텍스트로만 구성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서화해서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긴 글만으로 구성되다 보니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흥미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폐기능과 청력 검사 내용을 중심으로 시각적 자료를 포함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된 리플렛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리플렛

리플렛의 개발 단계에서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산업위생기사, 간호사들과 초안을 공유하며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역에 있는 선생님들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의사소통이 항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 18개 국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전문 번역가의 검수는 아직 거치지 못하고 AI 도구를 사용한 것이라 번역의 질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향후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께 이 리플렛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37>